

옛사랑은 아직도 싱그러워라

글 _ 김희정 · tladn2007@gmail.com



휴~ 드디어 태안이다.

바다에 가는 길이 이토록 고행인 적이 또 있었던가! 혹여 미모양과 뚝뚝2세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전전공공 운전을 하느라 뚝뚝씨도 팔다리가 후덜덜 기운이 쭉 빠진다.

뚝뚝씨 내외를 막무가내로 태안으로 끌고 온 박박사에게도 물론 합당한 이유는 있었다. ‘뚝뚝2세를 위한 가장 훌륭한 선물은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이며, 후세를 위해 봉사하는 윗세대의 모습은 태교

에도 무지막지게 좋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태안을 끝까지 사수하며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위한 진정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처음에는 임신부에게 장거리 여행은 위험하다며 가지 않겠다고 우겼던 뚝뚝씨도 얼룩처럼 거뭇거뭇 원유 찌꺼기가 남아있는 갯바위와 모래톱을 보자 문득, 아버지 박박사가 조금은 존경스러워졌다. 그러나 박박사가 트렁크에서 꺼내는 요상을 물건들을 보자마자, 알량한 존경심도 쑥 들어가 버리고 만다. 박박사의 엉뚱 돌출행동에는 이미 지칠 만큼 지쳤는데도 불쑥 짜증이 난다.

“아버지 또 뭘 하시게요. 도대체 그것들이 다 뭐예요?”

“이건 스티커처럼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태양전지. 나노 반도체 잉크를 사용해서 만든거다. 그리고 이건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해주는 장치, 이건 라디오. 내가 그동안 틈틈이 개발한 건데 말야, 태양전지로 전력을 생산해서 무선으로 전송하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거야. 우리가 봉사활동 하는 동안 며늘애기 심심할까봐 준비했지. 시에비 발명품으로 라디오를 들으면 더 좋지 않겠냐? 자, 일단 그놈막을 치고 그 위에 태양전지를 붙인 다음에...”

“농담마세요, 아버지. 스티커 태양전지는 얼마 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발된거잖아요. 고가의 실리콘에 고강도 유리, 대형 철제 구조물까지 필요한 기존의 태양전지를 대체할 첨단 전지라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거고, 무선전력 송신기술은 얼마 전에 MIT 10대 유망기술로 뽑힌 기술이에요. 아직 개발단계인걸로 아는데, 이걸 아버지가 만들었다고요?”

“아 글썄, 그놈들이 내 연구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훌딱 먼저 개발해냈지 뭐냐. 암체들 같으니라고...”



직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이 : 1972년생
 신장 : 182cm, 체중 : 65kg
 외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특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똑똑씨,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장비를 설치하는 박박사.
“자, 이제 드디어 시에비표 발명품 개봉박두!”



그러나 아뽀싸. 전원
시스템을 켜자마자
폭죽처럼 불꽃을
튀기며 ‘뽕!!’
하고 터져버리는
장비들. 모락
모락 올라오는
연기 속의 세
사람, 만화 주인공
처럼 얼굴이 검게
그을어 버린다.

엉터리 발명품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몰입한
박박사와 똑똑씨. 여기저기 입을 허영게 벌린 채 죽어
있는 조개와 고동들, 구석에서 썩고 있는 갈매기 사체를
보며 마음이 아프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박박사 부자,
일심동체가 되어 갯바위 밑에 켜 있는 원유를 닦아낸다.

“아직도 이렇게 원유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
어요.”

“그러게 말이다. 유흡착제(부직포)만 가지고 오로지 사람
힘으로만 원유를 제거했으니 한계가 있었겠지. 유흡착제가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압축솜이라서 표면적도 넓고
기름만 선택적으로 빨아들이는 효과는 있지만 말이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흡유볼’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거예요. 자체 무게의 40배에 달하는
기름을 흡수할 수 있고, 나중에 불을 켜면 기름까지 재활용
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했을텐데, 대량생산 직전단계
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기름을 먹고 자라는 미코박테리움,
스핑고모나스같은 미생물도 배양하고 있었다더구나.

바닷물 생존실험을
막 하던 중이라서
써먹지를 못했다는
데, 참 안타깝지.”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 때마
다 과학자로서의
책임감을 정말
무겁게 느껴요.



단지 첨단기술로 제품을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문화를 살리는 것도,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과학자들 손에 달려 있으니깐요.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똑똑씨의 말에 박박사, 잠시 말을 잊고 똑똑씨를 바라
본다. 똑똑씨 역시 아버지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
본다. 오랜 시간 갈등과 반목으로 일관했던 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뿌리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느낄 수 있었다.

“에헴... 뭐, 그랬지. 나 댄 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책무가 훨씬 컸지만 말이다. 에헴... 그리고
말이다. 에헴... 이런 말 쑥스럽지만, 나를 그렇게도 싫어
하던 네가 과학자가 돼 줘서, 참 자랑스러웠다.”

박박사가 더듬더듬 헛기침을 하며 처음으로 해 준 ‘자랑
스럽다’는 말에 똑똑씨, 눈물이 다 난다.

“고마워요, 아버지...”

감격에 겨워진 똑똑씨. 팔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다,
그만 발목이 빠끗하면서 박박사를 갯바위 아래로 밀어
버리고 만다.

“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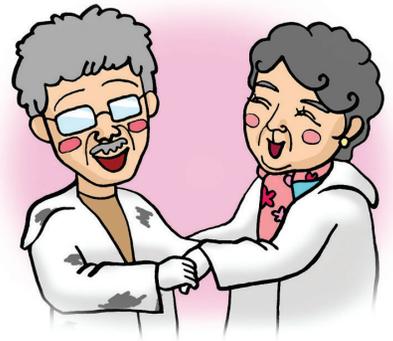
“아버지!!!”

젼싸게 갯바위 밑으로 내려간 똑똑씨. 당황스러운 풍경에
잠시 났을 않는다. 박박사가 웬 시골
할머니와 손을 부둥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이게 누구여. 진짜로
박잘난 맞어? 잘난이 오빠
맞냐고!!”

“그러 그러. 내가 박박사,
아니 박잘난이여. 탕자나무집
오말자! 아이고... 워짜 변투
않고 이르게 곱다냐!”

“오빠, 당췌 이게 몇 년 만인겨~”



똑똑씨의 눈에, 돌연 사투리 쓰는 시골영감으로 바뀌어
버린 박박사는 참으로 낯설었다. 그러나 더욱 낯선 것은
발그레한 낯빛과 미소였다. 아버지가 저토록 화사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머리가 핑~했다. 환갑
이 넘은 박박사의 얼굴에는 싱그러움과 설렘이 가득
배어있었다. **KISTI**

(똑똑씨의 박학다식은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